4대강·개헌 등 공방전 거세질 듯

여야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질문
예산국회 앞두고 전초전… 격돌 예고

국회는 1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일 외교·통일·안보, 3~4일 경제, 5일 교육·사회·문화 등 5일간의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김황식 국무총리 취임 이후 첫 국회 답변인데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앞두고 열려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 분야에서는 개헌 문제와 정치인·민간인 사찰, 외교·통일·안보에서는 대북 쌀지원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란, 경제 분야에서는 감세 철회 논쟁과 재정건전성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모든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4대강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국감에서 4대강 공사 편법입찰 의혹을 제기한 김진애 의원과 문화재 파괴를 지적했던 김부겸 의원, 4대강 사업에 따른 채소류 수급 문제를 제기한 김영록 의원 등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화끈한 공격력을 갖춘 의원들을 대정부질문에 투입했다.

여기에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의 강봉균·김진표 의원, 국세청장과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지낸 이용섭 의원 등 당내 예산 전문가들도 등판시켜 힘을 보태기로 했다.

차영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3년을 평가할 것"이라며 "민주주의 후퇴, 서민경제 파탄, 남북관계 위기, 4대강의 숨겨진 운하사업 등을 추궁하고 의혹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은 야당의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최근 일련의 검찰수사에 대한 집중포화를 정치공세로 규정, 공격력을 무력화하는 한편 서민복지와 공정사회 구현 정책 등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야당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올 국정감사에서 돋보인 활약을 펼쳤던 이종혁·김정권·박민식(정치), 구상찬·유기준·전여옥(외교·통일·안보), 나성린·김성식·권택기(경제), 한선교·이춘식·조윤선(교육·사회·문화) 의원 등을 배치했다.

한편, 이번 대정부질문에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8명이 나서 정부와 여당 견제의 선봉장이 된다. 이는 민주당 전체 대정부질문 의원 20명의 40%나 된다. 1일 강기정, 2일 박주선·김성곤·이용섭, 3~4일 이윤석·조영택·김영록, 5일 주승용 의원이 각각 나선다. /박지경기자 jkpark@

손대표 '노조간부 분신' 논의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열린 구미 KEC 노조간부 분신 관련 정부 규탄 회견 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야당 대표 등과 대화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은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연합뉴스

檢, '사정 폭풍' 안전지대 없다

한화·태광·세모·C&그룹 칼날… 전국 휘몰아쳐
"다음은 누구더라" 소문에 정재계 우려 목소리

검찰발 사정(司正) 폭풍이 전국을 휘몰아치고 있다. '박연차 게이트'로 폐지론에 직면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1년 반을 절치부심하며 벼려온 칼날을 C&그룹에 댄 것이 공식적인 '출발신호'가 됐다.

서울과 지방의 각 지검은 이를 신호탄 삼아 경쟁이나 하듯이 정·재계를 겨냥한 수사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 '성역은 없다'…현란한 검무(劍舞)=대검 중수부는 지난달 21일 서울 장교동 C&그룹 본사와 대구의 C&우방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임병석 회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1주일이 지난 27일에는 전남의 C&중공업과 광양예선도 추가로 뒤졌다.

중수부가 1년4개월간의 동면에서 깨어난 당일 서울서부지검은 태광실업 비자금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선애(82) 태광산업 상무의 자택과 은행 대여금고를 찾아 나섰다.

앞서 지난 9월 서부지검은 한화그룹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압수수색 릴레이'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뒤이어 태광그룹 본사와 이호진 회장의 빌라, 서울지방국세청, 태광의 주거래은행, 한화 호텔&리조트 등을 차례로 뒤졌다.

이에 뒤질세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현 정권의 실세 기업인이자 '살아있는 권력'으로 불리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사인 임천공업에서 40억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천 회장은 두달 전 출국한 뒤 검찰의 소환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중앙지검이 천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날 창원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민주당 최철국 의원의 경남 김해 사무실을 동시에 뒤졌고, 서울북부지검은 청원경찰친목협의회가 현역 국회의원 30여명을 상대 로 한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재계 위주로 진행되던 검찰 수사의 불길이 마침내 정계로 옮아붙은 것이다. 검찰의 이처럼 현란한 검무(劍舞)는 어디에 원천을 두고 있을까.

과거에는 정권출범 초기에 대형 비리 사건들을 손보는 경향이 강했던 검찰이 현 정부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행보를 보여왔다. 그러던 차에 '공정사회'라는 집권 중반기의 화두는 검찰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력원이 됐는 분석이다. 검찰은 숨죽이고 살면서도 끊임없이 범죄정보를 모았고, 결국 살길은 수사밖에 없다는 조직논리가 함께 작동하면서 추상같은 사정활동에 대대적으로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옷매무새 여미는 정재계=검찰발 사정한파가 본격화된데 대해 정·재계에서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거나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재계에서는 서열 10위권 안의 대기업 서너곳이 중수부의 다음 수사 대상 리스트에 올랐다는 흉흉한 소문과 관련해 기업 전반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높아지는 동시에 기업수사가 조기에 일단락되기를 바란다는 시그널이 새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민주당 등 구 여권을 표적으로 한 '기획수사'라며 의구심을 표시하면서도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노심초사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국회 연설에서 "국민은 공정사회라는 허울로 포장된 의도된 사정에 대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정면 비판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는 성역을 가리지 않고 수사한다' 원칙에 따라 본연의 갈 길을 간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사정폭풍의 진로가 어디서 꺾이게 될지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연합뉴스

"4대강 대운하 일축" "반서민 정책 추궁"

대정부 질문 여야 전략

◇한나라당=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최근 일련의 검찰수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야당의 공세를 철저한 정책 점검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4대강 문제, 한미FTA에 대해서는 당내 목소리가 일치돼 있지만 개헌은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간, 감세철회 문제는 찬반 의원들간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문제를 놓고는 야당과 치열한 전투를 각오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래 수량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한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야당의 대운하 주장을 일축하면서 정부에 조속한 공사와 함께 반대론자에 대한 설득 노력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국정 전반에 걸친 소통부재와 더불어 '반(反)서민적, 반민주적' 행태를 철저히 짚고 나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4대강 사업과 민간인 사찰, 재정악화와 감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낱낱이 따지고 대책을 추궁함으로써 국정의 난맥상을 드러 내겠다는 것이다. 향후 예산국회에서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 그룹과 치열한 전투가를 국감 전면에 배치했다. 강봉균·김진표·이용섭·조영택 의원 등 전문가 그룹과 강기정·김진애·장세환 등 전투력을 갖춘 초·재선 의원을 동시에 질문자로 내세웠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치활동 기지개 켜는 정세균

7일 서울 관악산 등산
12월 호남지지자와 산행

10·3 전당대회 참패 후 자숙의 시간을 가져온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치활동 재개에 시동을 걸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전당대회 후 처음으로 전주에 내려가 전북지역 언론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먼저 국민적 신뢰를 받고 후 욕심을 내겠다"면서 대권도전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회 4선 의원을 지냈고 산자부 장관을 비롯해 당 의장 등 정책과 정치를 두루 맡아 훈련과 검증이 됐다"며 "대권 도전에 앞서 대중성을 얻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게을리 않고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오는 7일에는 서울 관악산에서 수도권의 지지자들과 함께 대규모 산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산행에는 전당대회 선거 캠프의 좌장이었던 김진는 의원을 비롯해 윤호중·김교흥·김영주 전 의원 등 수도권 지역위원장과 지지자 400여명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2월에는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 지지자들과의 산행을 계획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청목회 '입법로비' 지역의원들 연루

검찰, 리스트 확보

검찰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의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낳고 있다.

지난달 31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 6부는 청목회 회장 최모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후원금을 받은 현직 국회의원 33명의 명단이 적힌 문건을 확보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강기정, 이윤석, 최인기, 김충조 의원 등은 지난해 4월 청원경찰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강기정, 최인기 의원은 청목회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어 청목회 회원들이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개인 이름으로 10만원씩 후원금을 보내와 정확한 액수 등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실 관계자도 "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지역 청원경찰들이 10만원씩 후원금을 냈다"며 "이는 청목회 로비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윤석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청목회 측에서 후원금을 가져와 거절한 바 있다"며 "후원회 장부를 확인한 결과, 청목회와 관련된 후원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된 청목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국무역협회 부동산(토지) 매각 공고

1. 매각대상토지

소재지 및 지번	면적(㎡)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89-3	10,581.9	대	상업 및 업무용 나지	일반 상업

2. 신청자격 및 매각방법
○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최고가 경쟁입찰

3. 매각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장 소
입찰신청	2010. 11. 1(월), 15 : 00 ~ 11. 19(금), 15 : 00	한국무역협회 경영Unit
입 찰 (현장등록 및 투찰)	2010. 11. 26(금), 13 : 00 ~ 13 : 30	한국무역협회 51층 회의실
개 찰	2010. 11. 26(금)	〃
입찰결과 발표	2010. 11. 26(금)	〃
계약체결	최종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	한국무역협회 경영Unit

※ 신청서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 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인편으로 제출
※ 상기 일정은 변경가능하며 변경시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 사유 및 일정 재공고

4.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반환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할 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 입찰보증금 반환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낙찰되지 않은 신청인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서에 기재한 반환계좌로 반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6. 입찰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매각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개 인	법 인
- 신분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공통 : 입찰신청서 1부, 입찰보증금(현금, 수표) 또는 보증보험증권 1부	

※ 공동신청은 대표자선임계 및 공동신청인 전원 구비서류 제출
※ 입찰시에는 개인은 본인만 참가가능, 법인의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법인인감 날인필),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7. 기타세부사항
○ 입찰신청자는 반드시 본 매각공고 외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에 공지되어있는 매각공고 세부내용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8. 문 의
○ 한국무역협회 경영관리본부 경영Unit
- Tel. 02-6000-5046, Fax. 02-6000-5070, e-mail. chairman07@kita.net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9층
- 입찰관련 질문은 서면으로만 접수. 끝.

2010. 11. 1

(사)한국무역협회

조루증 치료제 임상연구 참여자 모집

발기부전과 **조루증**을 동시에 겪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다폭세틴의 치료효능과 안전성**을 알아보는 임상연구에 피험자를 모집합니다.

참여대상
◆만 20세 이상 남성으로 조루증과 발기부전을 함께 겪고 있는 분
◆최소 6개월 이상 고정적인 이성 파트너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분
◆발기부전 치료를 위해 최소 3개월 이상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해온 분
◆기타 임상시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 동의한 지원자 중 신체 검사 및 기타검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분

임상시험 참여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본 연구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십시오.

Tel. 062-220-6710

남부대학교 대학원
전기 석 · 박사 신입생 모집

【 일반대학원 】

석사	기계공학과/ 디지털경영정보학과/ 향장미용학과 한방제약개발학과/ 사회복지학과/ 음악학과/ 스포츠과학과
박사	기계공학과/디지털경영정보학과/향장미용학과 사회복지학과/ 대체의학과

【 교육대학원 】

석사	교육행정전공/ 유아교육전공/ 상담심리전공/영양교육전공 미용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조리교육전공

※ 학부의 전공과 지원하는 본 대학원의 전공이 동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음 (단,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 미용교육전공, 조리교육전공 중등학교 정교사2급 취득(관련학부 졸업자에 한함)
※ 영양교육전공 영양교사2급 취득(영양사면허증 취득자에 한함)
※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2급 정교사2급 취득(현직교원에 한함)

석사	간호학과/ 방사선학과/ 대체의학과/물리치료학과 언어치료청각학과(언어치료,청각)/ 컨설팅학과/ 의공학과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0년 11월 1일(월) ~ 11월 19(금)
◦면접전형 : 2010년 11월 26일(금)

▶대학원교학실 : 062)970-0046~7 ☞ FAX : 062)970-0044
▶우편접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864-1 남부대학교 대학원교학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http : //graduate.nambu.ac.kr)

2011학년도 남부대학교 정시모집
원서접수 2010년 12월 18일 ~ 24일
입학홍보처 062)970-0114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용지관 문화전문대학원
Tel: 062-530-4061~4063 Fax: 062-530-4069

꿈의 사회를 이끌어갈 창조적 문화전문인력 양성
국내 최초 유일의 Culture-School

문화로 욕망을 디자인하라

2011학년도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그러나 세상을 밝혀줄 길
문화전문대학원이 함께 합니다

모집안내

모집과정	모집인원		지원자격
석사학위 과정	문화경영 및 관광전공	OO명	가. 응시계열 출신학과(계열,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나. 지원자격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11년 2월 이내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문화예술이론 및 기획전공	OO명	
	계	30명	

전형일정

구분	원서접수기간	전형일시	최종합격자발표
석사학위 과정	2010.11.2~11.12	1차 : 2010.11.19 2차 : 2010.11.25	2010.12.21

문의
■ 행정실: 062) 530-4061~4063
■ 자세한 내용은 문화전문대학원 홈페이지(culture.chonnam.ac.kr) 참조